

##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 - 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

최원석\*

### Locational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he Eup-Settlement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from Feng-Shui's Point of View

Wonsuk Choi\*

**요약** : 이 글은 조선시대 지방도시(읍치)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에 관해 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풍수적 입지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읍치는 경상도의 전체 읍치 중에서 약 58%의 비율에 이르렀다. 경상도 읍치의 입지 지형은 산기슭과 背山平地가 많았는데 풍수적 요인도 입지 선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입지한 읍치는 풍수적 국면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 새로 들어서거나 읍치를 이동한 지방도시의 입지에서는 분명한 풍수적 지향성이 드러났다. 풍수적 입지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들의 경우라도 조선 중기 이후에 지방사회에서 풍수적 영향력이 점증되자 기존 읍치는 풍수적으로 새로 해석되고 인문적 요소를 통하여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글에서 경상도 읍치의 경관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을 갖추지 못하고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의 비중도 낮은 읍치이다. 이들 읍치의 공통적인 속성은 海邑인데, 군사방어를 위한 요충지적인 위치가 주 입지요인으로 작용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자연적 풍수입지를 하지 않았거나 비중이 적지만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는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들 지방도시는 최초 고려 말 이후로 점유되어 왔던 중심지적 관성, 군사방어, 교통, 경제 및 상업 등 風水 外的인 입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지하였지만 나중에 풍수적 인문경관으로 재구성된 결과이다. 셋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속성은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지방행정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어** : 지방도시, 읍치, 읍지, 경관, 풍수, 비보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ocations and to interpret the landscapes of the local towns in Joseon Dynasty from Feng-shui's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locations of towns in Gyeongsang Province, the towns which have typical Feng-shui landscapes make up to 58% of the total. Historically, the local towns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didn't reveal Feng-shui's landscape, but those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revealed the Feng-shui's landscape clearly.

In this article, I classify the local towns of the Gyeongsang Province into 3 types: 1. Non Feng-shui type. These towns are located near the seashore. The main reason that these towns were located at the seashore was defense against an enemy. 2. Semi Feng-shui type. These towns don't have natural location but have a man-made landscape, based on the principles of Feng-shui. 3. Typical Feng-shui type. These towns were typically administrative towns which were located at the center of a local region.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Ph. Doctor,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wschoe@empal.com

Key Words : feng-shui, eup-settlement, local town, location, classification, landscape, Joseon Dynasty, Gyeongsang Province

##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지방도시(이하 읍치로 통일)를 자연적인 풍수입지와 인문적인 풍수경관으로 분류하고, 경상도 71개 읍치를 사례로 현지 조사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며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이 논고를 통하여 조선시대 읍치의 자연적 입지와 인문적 구성에서 풍수적 경관 패턴은 어떻게 드러나고, 읍치의 풍수적 경관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풍수적 요인이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 결정 및 이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읍치의 풍수적 입지 경향성은 역사적·지형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나타나는지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경상도 71개의 읍치 경관을 사례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읍치경관의 입지 및 유형에 대한 풍수적인 견지의 실증적이고 역사적인 분석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한국의 취락에 관한 풍수적 연구물은 주로 수도(왕도) 입지의 역사적 고찰이나 마을(특히 班村)의 풍수적 입지 및 배치, 그리고 풍수적 경관 연구에 집중되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수도와 마을의 중간적 위계를 차지하는 읍치가 전국에 약 330여개 있었고 조선시대의 정주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한 풍수적 입지 및 경관 연구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조선시대 읍치의 풍수적 입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읍치에는 풍수지리라고 하는 전통적 공간원리에 의한 원형적인 입지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식의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이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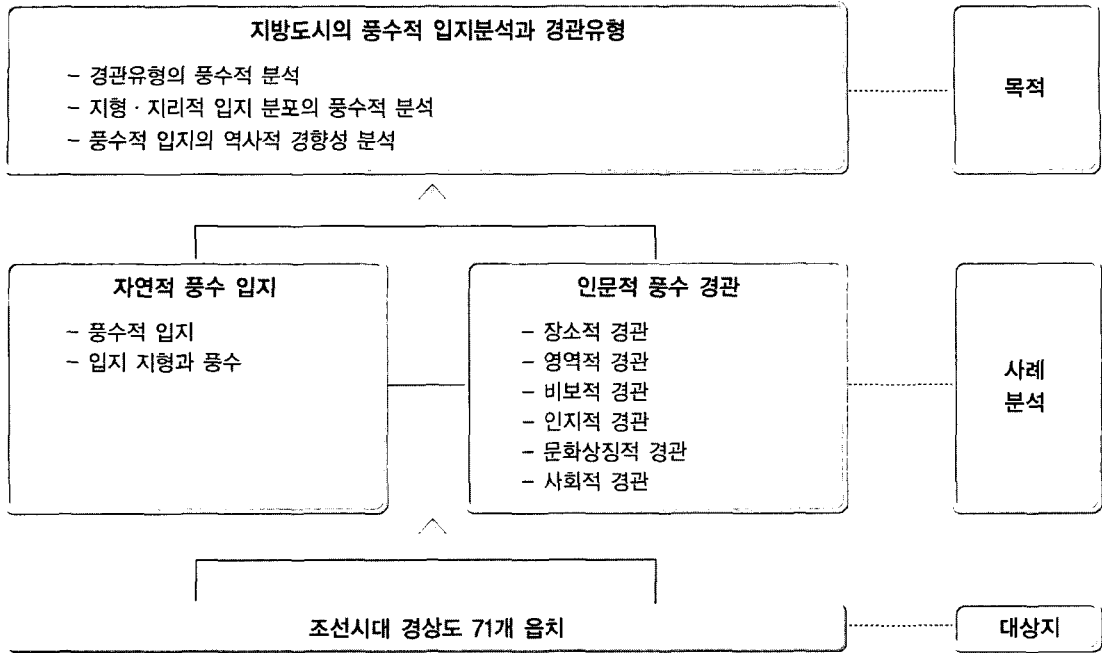
그러나 이 논고에서 밝혀지겠지만, 경상도 71개 읍치의 입지에서 풍수적 입지경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총 71개 읍치 중에서 41개소로 약 58% 정도의 비율에 그치고 있으며, 풍수적 입지 국면이 거의 나타나

지 않은 읍치도 14개소로 전체 읍치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大邑만 하더라도 진주와 안동 외에 대구, 상주, 경주에서는 풍수적 입지국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입지 결정 요인에서 풍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풍수적 입지 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들은 이후에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아울러 지방사회에서 풍수사상적 영향력이 점증되자 기존 邑基 지형이 풍수적으로 새로 해석되고 비보나 기타 인문적 요소를 통하여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 전반에 풍수적 패턴이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 풍수는 읍치의 입지 결정 및 경관 구성 과정에서 꼽힌 여러 입지 요인 중의 하나로서 그 비중과 영향력은 역사적 시기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조 중앙 정치권력의 지방 지배과정 및 풍수적 가치의 시대적 수용과 흐름을 같이하여 조선 초기에는 읍치의 정황에 따라서 풍수적 입지 요인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조선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풍수적 입지 지향성이 두드러진다고 보는 편이 옳겠다.

이상과 같은 논지와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의 서술 순서와 체계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읍치 경관에 나타나는 풍수적 패턴을 자연적 입지요소와 인문적 경관요소로 유형화하여 경상도 읍치의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邑基의 자연적 풍수 요소는 來龍, 藏風, 得水 국면 순으로 고찰한다. 인문적 풍수경관의 구성은 읍치 주요 건축물의 입지와 배치(장소적 경관), 邑基 비보 경관의 형성(비보적 경관), 읍지와 읍치도에 묘사되거나 기술된 읍치경관의 풍수(인지적 경관), 읍치의 풍수와 관련된 지명 및 풍속(문화상징적 경관), 풍수적 읍치경관의 사회적 변동(사회적 경관)으로 분류하여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읍치의 풍수적 경관 분석은 세 가지로 시도할 것인데, 첫째, 경상도 71개 읍치 경관을 대상으로 자연적 입지와 인문적 경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해

표 1. 조선시대 지방도시(읍치) 경관의 풍수적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석을 시도하며, 둘째, 경상도 邑基의 지형적·지리적인 입지 분포를 풍수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셋째, 입지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는 읍치를 대상으로 풍수적 경관의 역사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그 배경을 해석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위하여, 읍지 및 읍지도 등의 문헌 조사와 아울러 현지답사를 통해 구체적 사례와 함께 경상도 읍치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의 구성을 귀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는, 읍치 경관의 풍수적 사실에 관한 문헌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었다.

이 연구가 경상도의 7개 읍치 경관을 대상으로 해석한 연구범위로 한정되지만,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 인 체제 하에서 전국에 산재하였던 330여개 읍치의 입지 및 경관 구성 방식에는 일관된 규범성과 패턴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풍수적 입지와 구성, 유형으로 일반화되어 적용되어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된다. 물론 조선시대 邑基의 입지와 풍수적 경관구성에서 나타나는 시기적, 지역적 특성 및 그 해석은 비교 연구로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연적 풍수 입지

### 1) 풍수적 입지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자연환경(재해), 식수, 군사적 방어, 교통 여건, 정치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인자가 있지만 그 중에 풍수적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의 읍치 경관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풍수 입지 국면 및 요소에는 來龍, 藏風, 得水라는 풍수원리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邑基로 이르는 풍수적 來龍 요소이다.

풍수 국면의 來龍 요소는 세 가지 정도로 세분해서 관찰이 가능하다. 우선 가시적 지형 형태는 (近)祖山에서 邑基 배후의 主山(혹은 鎮山)으로 이어져서 隄(邑基)로 이르는 來脈의 연결성이 보인다. 예컨대 순흥 읍지도(그림 1)에는 邑基로 산줄기가 이르는 과정이 풍수적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다. 한편, 邑基 경관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는 主山 요소는 풍수적 입지의 來龍 조건을 확인하는데 있어 핵심적 지표가 된다. 하동의 읍지도에는, 邑基가 背山하여 입지하고 있는데 그 산을



그림 1. 來龍이 잘 표현된 (순흥부 지도)(1872년,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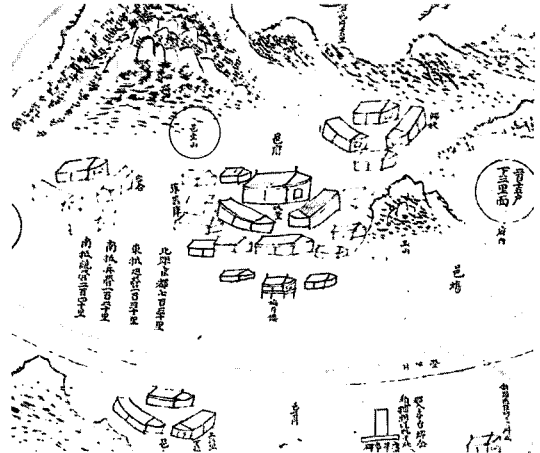


그림 2. '묘주山'이라고 표기(○표시)된 (함천군지도) (1872년, 규장각 소장)

‘묘주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그림 2). 부가적으로 主山에서 혈에 이르는 龍脈이 穴證을 갖추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來龍 조건이 된다. 穴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가 來龍이 혈에 이를 즈음에 둔덕으로 맺히는 마디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거제 신읍에서 계룡산의 주산 來脈이 邑基에 이를 때 마디처럼 맺히면서 형성된 동산이나, 초계 邑基 등지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邑基의 來龍 조건은 조선 후기 邑誌의 山川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일수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보아 읍치 경관의 풍수적 구성과정에서 邑基의 來脈이 보다 심화되어 파악하기에 이른 시기는 조선 후기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풍수적 입지국면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시대 읍치의 지형경관은 來龍 요소뿐만 아니라 邑基를 중심으로 한 藏風의 요소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풍수적 藏風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主山(혹은 현무)과 客山(혹은 朝案, 주작)이 앞뒤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主客相對) 국면과 전후좌우로 邑基를 에워싸고 있는 四神砂(四神砂) 국면을 갖추어야 한다. 경상도 邑基의 풍수적 경관에서 主客相對 국면은 다수 발견되며 곤양도 그 중의 하나이다. 主客相對의 조건을 갖춘 邑基 지형은 주산과 객산을 잇는 縱線이 邑基의 장소적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축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

다 이상적인 藏風 국면을 갖춘 邑基는 좌우로 좌청룡과 우백호를 포함한 四神砂(청룡, 백호, 주작, 현무)요소를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邑基의 四神砂 바깥으로 여러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邑基 지형은 최선의 藏風 국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읍치의 지형적 입지에서 主客相對, 四神砂, 外山의 環抱 요소는 풍수적 입지를 판별할 수 있는 藏風 국면의 지표가 된다. 예컨대 『海東地圖』중에 진주 도읍(그림 3)을 보면 주산인 비봉산에서 來脈이 나와 客山인 망진산과 相對하고 四神砂 국면을 형성하면서 邑基를 에워싸고 있는 藏風의 조건을 잘 표현하였다.

풍수적 입지국면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시대 읍치의 지형경관은 자연적인 요소로서 來龍 및 藏風 요소뿐만 아니라 邑基를 두르는 得水의 경관 패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得水의 가시적인 형태로서, 읍치를 중심으로 앞이나 혹은 곁에 끼고 있는 하천(面水 혹은 帶水)과 邑基를 감도는 하천(環抱水), 邑基 좌우로 갈래져서 흐르던 물이 水口部에서 합치는 하천(合水) 등은 풍수적 입지국면이 반영된 得水 조건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영천 고지도의 좌측 하단에는 ‘二水 合襟’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풍수적 입지의 得水(특히 合水) 조건을 풍수적 표현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봉화 고지도는 邑基의 合水 국면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4).



그림 3. 邑基를 에워싸고 있는 용맥을 잘 표현하고 있는 『海東地圖』의 진주 도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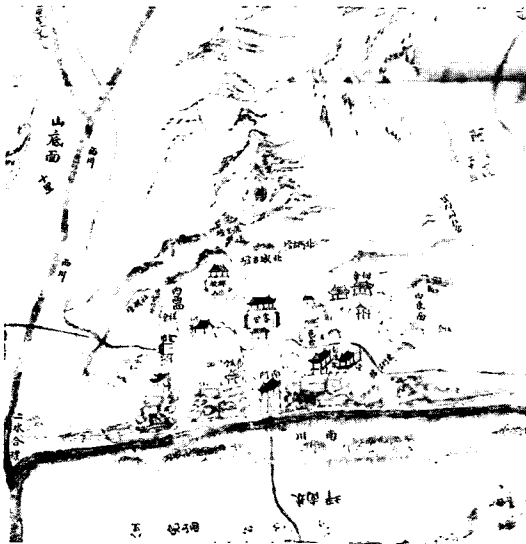


그림 4. '二水合襟'이라고 표기(좌측하단)된 군현지도 - 영천군(1872년, 규장각 소장)

## 2) 입지 지형과 풍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邑基가 입지한 지형은 平地, 산기슭, 丘陵地, 산간(山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시대 경상도 71개 읍치의 입지 지형을 분류하면 표(2, 3)와 같다. 이러한 입지 지형 형태를 다시 풍수와 관련시켜 세분화하면, 평지 입지는 해안 혹은 강가, 들판의 一般平地와 배후에 산을 끼고 평지에 입지하여 있는 背山平地로 나눌 수 있다. 一般平地의 경우에는 대체

적으로 주산 來脈 조건을 얻지 못하여 풍수적 입지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背山平地는 일단 來脈의 主山 조건에서 풍수적 입지의 지형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背山平地 입지 형태는 조선시대 읍치의 전형적인 풍수적 입지 유형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산기슭, 구릉지, 山腹 입지 역시 來脈의 主山 조건에서 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來脈 조건 뿐만 아니라 藏風 및 得水 조건까지 구비해야 풍수적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산기슭 입지도 풍수적 조건과 고려하여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앞에 산과 마주하던지 (主客相對) 혹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장풍적 조건을 갖춘 藏風의 산기슭 입지와, 장풍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홀로 있는 산의 기슭에 입지하고 있는 獨山의 산기슭 입지로 세분될 수 있다. 藏風의 산기슭 입지는 조선시대 읍치에서 전형적인 풍수적 입지 형태이지만, 獨山의 산기슭 입지는 같은 산기슭 입지라도 전형적인 풍수적 입지라고 할 수 없다.

경상도 읍치 중에서 풍수적 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들의 입지적 속성을 지형조건과 관련시켜 일반화해보자면, 평지에 입지한 읍치로서 주산의 來龍 조건을 얻지 못한 경우(거창, 단성 강루리 구읍, 언양, 진해, 경주, 신령, 풍기 등)와, 특히 평지입지이면서 邑基의 배후에 하천이 흘러서 來龍 및 藏風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경산, 경주, 대구, 산청, 영일 생지리 신읍, 진보 구읍 등)가 있고, 그밖에 구릉지 혹은 산기슭 혹은 산복에 입지하여 주산 조건은 확보하였으나 邑基 주위에 산으로 에워싸이지 못하여 藏風 조건을 얻지 못한 경우(고성, 영덕, 청하, 영일 남성리, 남해 구읍 등)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입지한 해읍(거제 사등성, 웅천, 영해, 청하, 홍해)의 경우에도 來龍, 藏風 등의 풍수적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지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해읍의 지리적 위치상 군사방어를 주목적으로 입지 지형이 선택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풍수적 요소와 국면이 잘 드러나는 읍치의 지형적 공통성을 살펴보면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인 산기슭에 입지한 읍치(단성 내산, 하동 신읍, 봉화, 영양, 영일 대잠동)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두른 평지(背山臨水 平地)에 입지한 읍치(거제 신읍, 진주, 진보 진안리, 칠곡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표 2. 조선시대 읍치의 지형·지리적 입지(경남)

평지		지형적 입지				지리적 입지		
		평지		구릉지	산기슭	산복	내륙	해안
		일반	배산					
거제	사등성		○				○	
	고현성				○		○	
신읍			○				○	
거창			○			○		
고성				○			○	
곤양					○		○	
기장				○			○	
김해		○					○	
남해	구읍			○			○	
	신읍		○				○	
단성	구읍	○				○		
	신읍				○	○		
동래					○		○	
밀양					○	○		
사천					○		○	
산청					○	○		
삼가					○	○		
안의					○	○		
양산					○	○		
언양			○			○		
영산					○	○		
울산					○		○	
웅천		○					○	
의령					○	○		
진주			○			○		
진해			○				○	
창녕					○	○		
창원					○		○	
초계					○	○		
철원			○			○		
하동	구읍					○	○	
	신읍					○	○	
함안					○	○		
함양			○			○		
합천					○	○		

표 3. 조선시대 읍치의 지형·지리적 입지(경북)

평지		지형적 입지				지리적 입지		
		평지		구릉지	산기슭	산복	내륙	해안
		일반	배산					
개령			○				○	
경산		○					○	
경주		○					○	
고령			○				○	
군위						○	○	
김산						○	○	
대구		○					○	
문경						○	○	
봉화						○		
비안						○	○	
상주			○				○	
선산						○	○	
성주						○	○	
순흥			○				○	
신녕			○				○	
안동						○	○	
영덕						○	○	
영양						○	○	
영일	장흥동	○					○	
	남성동					○	○	
	대잠동					○	○	
	생지리	○					○	
영주(榮川)						○	○	
영천						○	○	
영해						○	○	
예안						○	○	
예천						○	○	
용궁	구읍		○				○	
	신읍		○				○	
의성			○				○	
의흥						○	○	
인동						○	○	
자인	신관리					○	○	
	원당리		○				○	
	복사리		○				○	

표 3. 조선시대 읍치의 지형·지리적 입지(경북) 계속

평지	지형적 입지					지리적 입지	
	평지		구릉지	산기슭	산복	내륙	해안
	일반	배산					
장기					○		○
지례				○		○	
진보	진안리	○				○	
	광덕리			○		○	
청도				○		○	
청송				○		○	
청하			○				○
칠곡	구읍				○	○	
	신읍			○		○	
풍기	○					○	
하양	구읍			○		○	
	신읍			○		○	
함창			○			○	
현풍				○		○	
흥해	○						○

상도에서 풍수적으로 입지한 邑基의 지형 유형을 일반화하여 보면 藏風의 산기슭형과 背山 평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 3. 인문적 풍수 경관

#### 1) 장소적 경관

풍수는 조선시대 읍치의 주요 기능적 건축물과 장소의 입지와 배치 결정 및 이동에도 일정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인 읍치 건축물이라고 할 만한 객사, 동헌(아사), 향교는 가급적 풍수가 좋은 위치에 입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건축물의 이전 동기에도 풍수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물론 객사, 동헌, 향교와 그 밖의 제의시설 등은 각각 기능과 위계가 달라서 건물의 입지 및 배치에 상대적으로 다른 개성을 나타낸다.

먼저 客舍와 衙舍의 기능성과 위계성이 어떻게 풍수와 연관되어 공간적 배치에 반영되어 읍치경관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경상도 읍치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衙舍는 客舍에 비해 실질적인 통치의 기능성이 강조되고, 客舍는 衙舍에 대하여 형식적인 질서의 위계성이 강조되어 읍치공간에 표현된다. 客舍와 衙舍의 절대적 위치를 고찰하여 보면, 客舍는 읍치공간에서 국가적 지배질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관 지점에 위치하는데, 그곳은 실제적으로 읍치공간의 중심이나 상단부 혹은 배후, 그리고 읍치공간의 주축선인 南門大路의 頂點에 위치하였다. 한편 東軒(아사)은 客舍 보다 次下位의 위계를 지니는 건축물이지만 지방 통치권력으로서의 중심성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경관 지점이 선택된다. 특히 지방 관아는 私的空間인 內衙를 갖추기 때문에 常住 기능을 감안하여 비교적 客舍보다는 주거환경에 비중을 두기 마련이며 따라서 客舍보다 풍수적 입지성이 더 짙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客舍와 東軒 건축물의 主向을 비교해 보아도 客舍는 기본향으로 南向하는 궁실건축의 절대적 정형성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東軒은 기본향 외에도 풍수적 地勢向을 선택하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최원석, 2005, 14-15).

풍수는 읍치 주요 건축물의 이전 과정에도 요인이 되었다. 군위 읍치는 풍수적인 이유로 동헌을 옮긴 적이 있는데, 현감 남태보가 지은 <衙舍重建記>에 의하면, 衙舍 자리가 풍수에 좋지 않아 옮겼다는 내용이 현전한다. 특히 향교의 입지 및 이동에 풍수는 비중 있게 영향을 끼쳤다. 조선 중기 이후에 鄉儒들이 향교의 移建을 요청하여 실제 옮긴 사례가 많았던 것 역시 풍수지리적 영향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정국 외, 1990, 31). 그밖에도 조선시대 읍치의 중요한 제례시설로 1廟(文廟)·1社(社稷壇)·2壇(城隍壇, 厲壇)이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형식적인 배치 원리를 따르지만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장소 선택이 유연해지고 그 과정에서 풍수도 영향을 끼쳐 입지 선택에 개입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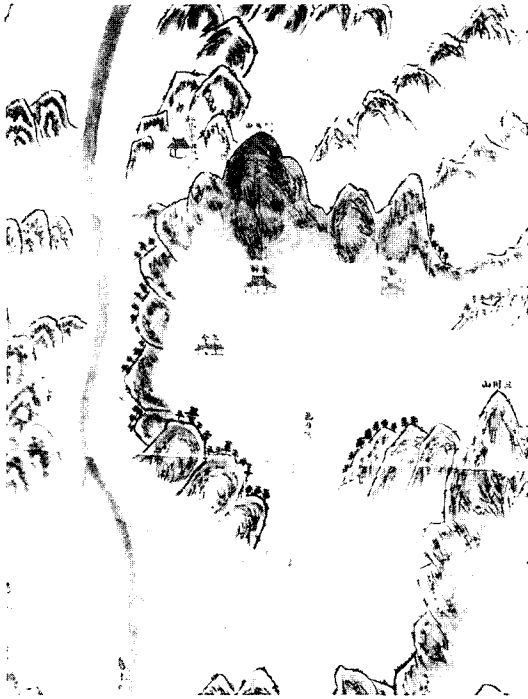


그림 5. 자인(1872년 제작 규장각 소장 군현지도) - 동헌과 향교가 풍수의 來脈에 접하여 입지한 반면 객사는 來脈과 접하지 않고 배치되었다.

## 2) 영역적 경관

읍치의 풍수적 경관을 구성하는 조성 주체는 읍치사회를 주도하는 권력집단으로서, 풍수적 경관의 형성을 통해 읍치를 영역화 하는 기능적 효과를 거둔다.

읍치 경관의 영역적 구성은 邑誌의 山川條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산줄기의 來脈 체계를 밝히는 방식 및 위치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鎭山(혹은 주산)을 설정하여 읍치 지형경관의 중심성을 갖추고 아울러 四神砂의 풍수적 국면과 형국의 설정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한다. 여기에서 읍치의 산천조 및 형승조와 읍치도의 표현을 통하여 영역화를 인지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읍치의 영역은 읍치를 구성한 사회집단의 인지적이고 상징적인 인식까지 포괄하여, 읍성으로 둘러싸인 읍치 권역, 읍성 외곽의 제의 권역, 읍지의 풍수 권역(명당 및 비보국면)이라는 중층적 스케일로 전개된다. 여기서 풍수 권역은 행정중심지의 외연으로서 읍치의 풍수적인 인지 영역이 되는데, 그 경관적 구성 범위는 主山을 중심으로 하는 읍치 사방의 산들과 그 내부의 하

천, 그리고 읍치 주위에 조성되는 비보시설 등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아울러 풍수적 명당 형국을 전형으로 하는 조선조 읍치의 일반적인 공간 구도와 범위는 생태적인 流域圈의 개념을 지닌다(최원석, 2004, 8)

읍치 경관의 영역화 과정을 일반화시켜 보면, 우선 主山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으로 에워싸인 명당 국면에 입지가 설정되고 풍수적 국면을 보완할 장소에 비보함으로써 매크로한 스케일의 영역을 구축한다. 그리고 읍치 중심부에 객사와 동헌 등의 행정 관청을 짓고 동시에 그 둘레로 읍성을 쌓음으로써 행정 및 군사적인 물리적 보위 장치를 마련하며, 읍치를 중심으로 주위의 사방에 제의공간(1묘·1사·2단)을 배치하여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안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象徵操作을 통한 읍치 영역의 조직화를 완결 짓는다.

## 3) 비보적 경관

비보는 풍수적 상징성과 실용적 기능성을 겸비한 문화생태학적인 환경적응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풍수적 경관보완 및 경관재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邑基 국면의 풍수적 입지경관은 비보를 통해 경관 이미지가 강화되고, 풍수적 입지가 아닌 경관국면은 비보를 통해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된다. 읍치 경관에 裨補가 형성되는 시기는 최초 읍치가 입지하는 동시에 읍지 지형의 풍수적 해석을 거쳐 비보가 조성되었을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풍수적 요인으로 입지한 읍치가 아니더라도 풍수사상이 영향을 끼쳐 읍치 경관이 풍수적으로 재해석 되면서 뒤늦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비보의 조성시기 및 비보의 배치를 통하여 邑基가 언제, 어떻게 풍수적으로 재해석되었으며 공간적 영역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읍치 입지과정에서 풍수적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고 풍수적 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는 조선 중기 이후에 풍수가 지방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권력집단에 의해 활용되는 과정에서 비보 경관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남해, 영천, 울산, 경주 등과 같이 조선 초기나 그 이전에 입지하였지만 풍수적 국면이 뚜렷하지 않은 읍치에 비보 경관이 발견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헌자료를 통하여 경상도 71개 읍치에서 나타나는 비보 경관을 분석해보면, 기능적으로 邑基의 입지 지형에 대한 藏風 비보 및 得水 비보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경주, 영주(榮川), 대구 등에서는 來脈 비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읍치에 따라서는 형국 비보도 나타났는데 주로 읍치의 鎭山 혹은 圭山이 飛鳳山인 것과 관련한 비보 내용들이 예천, 선산, 순흥, 진주, 함안 등지에서 나타났다. 형태적으로는 숲비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조산, 건조물, 조형물, 지명 등이 있었다. 비보 위치는 水口部 혹은 읍치 전면의 경우가 많았다.

#### 4) 認知的 경관

조선시대에 읍치경관을 풍수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읍지나 읍지도와 같은 읍치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문서에 기술하고 形勝으로 묘사함으로써 인지적인 구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읍지나 읍지도에서 邑基의 풍수적 국면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고 아울러 자연적이고 인문적인 풍수 요소가 표기되었다는 것은 地誌나 지도가 제작된 당시에 읍치경관에 대한 사회 일반계층의 인지에 풍수적 영향이 투영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읍지도에서 풍수적 국면에 대한 표현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海東地圖』(18세기 중반),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 군현지도 등의 읍지도와 『慶尙道邑誌』(1832), 『嶺南邑誌』(1895) 등의 읍지에 포함된 읍지도에 풍수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도 제작 및 표현 기법에 풍수가 반영되어 있는 배경에는 풍수가 당시 사회의 지리적 관념으로 영향을 끼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지도 제작에 풍수를 보는 相地官이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읍지도의 산천 표현 방식은 읍치의 풍수적 입지 요소가 되는 來龍, 藏風, 得水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인문적 경관구성 요소로서 읍치 주요 건축물인 객사, 아사, 향교의 입지와 배치, 비보 등도 표현되었다. 읍지도에 반영된 산수 체계의 풍수적 표현을 살펴보면, 읍치의 來脈과 주산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

으며, 읍치를 둘러싼 주위 산들의 環抱 형세를 과장되게 그렸고, 하천의 得水적 인식이 강조된 경우도 다수 있다. 비보숲도 여러 군현지도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읍치의 주요 경관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읍지도가 읍치의 공간적 인지를 공식적으로 표변하는 시각적 자료라면, 邑誌는 읍치의 지리적 정보를 수록한 문서적 자료로서, 둘 다 읍치경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邑誌의 편제 항목 중에서 山川條와 形勝條는 각각 邑基의 산천에 대한 기록, 읍치의 자연인문적 경관에 대한 개관이며, 이들 항목에는 풍수적인 읍치경관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조선후기 邑誌의 山川條에는 邑基의 來脈이 기록되었는데, 후기에 간행된 읍지로 갈수록 來脈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된다. 예컨대 16세기의 저술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만 鎭山의 방위상 위치와 거리만 적고 있을 따름이지만 19세기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에 이르면 鎭山의 위치 및 거리와 아울러 鎭山의 來脈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과 파악이 일반적으로 附記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볼 때 邑治 경관에서 邑基의 來脈이 보다 심화되어 파악하게 된 시기는 조선후기이며, 읍지의 산천조에 표현된 풍수적 서술은 읍치의 경관구성에 대한 인지적 체계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慶尙道地理誌』 등의 주요 邑誌에서는 따로 形勝條를 두고 있는데, 읍치의 형승 중에는 풍수적 인지가 반영된 내용이 여럿 등장한다. 형승이란 군현의 대표적 자연 및 인문 경관을 詩文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군현의 경관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글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형승조에 읍치 산천에 대한 묘사가 풍수적인 견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읍치 경관을 보는 관점과 풍수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邑基의 형승을 묘사하는 풍수적 패턴은 주로 邑基 자연경관의 대표적인 산수를 거명하고, 산수의 형세를 풍수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며, 간혹 산수의 영향으로 인물이 번성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 5) 문화상징적 경관

조선시대에 읍치의 풍수적 경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풍수지명 및 풍수적 풍속과 같은 문화상징적 형태도 있었다. 문화적 상징과 풍속을 통하여 邑民들은 읍치의 풍수적 환경인식에 대한 구성관계를 공고히 하는 문화생태적 적응 기제를 형성하였다.

지명 요소는 지명의 속성상 호칭된 시기의 사회적 배경 및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경관 인지의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풍수적 지명은 邑基지형을 형국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수반되어 풍수적 지명이 구성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지명비보는 이름을 불러 비보효과를 얻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상징적인 비보형태로서 대개 실제적인 형태의 비보를 시행 후에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附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세를 진압하거나 형국을 보완하는 기능의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읍치경관의 문화상징적 구성 방식 중의 하나로 풍속도 있다. 특히 경상도 읍치 중에 靈山·蔚山·彦陽邑에는 大同놀이라는 集團文化的인 經路를 통해서 읍치의 풍수적 국면에 대응하는 문화생태적 놀이가 있어 주목된다. 풍수적 기능으로 볼 때, 영산의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는 각각 山煞풀이와 地氣鎮壓의 기능을 하였고, 울산과 언양의 줄다리기는 龍脈牽引의 기능을 하였다.

## 6) 사회적 경관

읍치 경관을 구성하고 있던 풍수적 이데올로기와 가치는 지배집단의 통제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가치와 상충하며 도전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동은 읍치의 입지 결정 및 이전, 그리고 읍치 경관의 풍수적 구성을 바꾸는 동인이 되며, 그 사회적 맥락에는 읍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회집단과 읍치 영역 바깥에 거주하는 사회집단 간의 利害와 대립도 내포하고 있다. 조선 중후기에 풍수적 비보경관을 둘러싸고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전개되었던 경주 읍치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주 읍치는 옛 신라의 古都라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의 위치가 조선시대의 읍치로까지 점유되어 지속되다가, 나중에 읍치 경관이 풍수적으로 해석된 후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되었다. 경주의 입지국면은 북천, 서천, 남천으로 둘러싸인 하안의 평지에 邑基가 입지하고 있어서 풍수적 來脈 및 主山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來脈 조건의 보완을 위해 閑地藪와 裨補藪라는 숲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중기인 16세기에 들어 경주 읍치의 풍수적 비보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경지개간이라는 경제적 요구와 상충되면서 보전과 개발 가치의 이데올로기적 충돌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풍수적 가치에 대한 실용적 가치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裨補地를 활용하려는 평민들의 농지 개간 요구와 비보숲을 보전하려는 읍치 거주민들과의 공간적이고 사회계층적인 갈등 역시 반영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경주부의 來脈 비보 기능을 한 閑地藪는 여러 번 없애지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요컨대 조선 중기까지 읍치에 거주하는 邑民들의 閑地藪 보전이라는 정치적인 세력과 읍치 바깥에 거주하는 洞民들의 경지 개간의 요구라는 정치적인 세력이 갈등을 빚으며 전개되어 오면서, 대내외적인 전란 등으로 사회질서가 혼란한 시기에는 閑地藪가 경지로 개간되어 훼손되고, 지배세력의 정치적 힘이 강화될 때는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윽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풍수적 이데올로기의 사회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소멸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풍수적 가치 및 支持 세력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치 및 그 支持 세력의 도전이 시대적 가치의 전개와 함께 정치적으로 우세했던 것을 의미한다.

## 4.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의 풍수적 경관유형과 입지분석

### 1) 읍치 경관유형의 풍수적 분석

이상과 같이 살펴본 풍수적 경관의 자연적 입지 요소와 인문적 경관 요소를 기준으로 경상도 읍치의 풍

수적 경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풍수적인 입지 및 경관구성의 정도에서 큰 편차를 나타내며, 읍치에 따라서 풍수적 입지와 경관구성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곳과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풍수의 전형적 국면이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분석방법, 항목의 분류 기준, 풍수입지도의 유형 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를 참고하기 바람).<sup>1)</sup>

경상도 71개 읍지의 풍수적 입지도와 경관구성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 풍수입지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나중에 입지한 읍치(신읍)를 기준으로 邑基 경관에 풍수적 입지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읍치(3가지 입지요소 구비)는 총 71개 읍치 중에서 41개소가 나타나 약 5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邑基 경관에 풍수적 입지 국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읍치(2가지 입지요소 구비)는 총 16개소로서 23%의 비율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邑基 경관에 풍수적 입지 국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읍치(1가지 이하의 입지요소 구비)는 14개소로서 전체 읍치에서 20%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에 풍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읍치의 행정 위계적 측면에서 입지 특징을 분석하여 보자면, 조선 중기의 대읍인 경주, 안동, 대구, 상주, 진주 등지에서 안동과 진주만 풍수적 입지 경관이 뚜렷한 반면, 경주, 대구, 상주의 邑基 경관에는 풍수적 입지 요인이 부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대읍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풍수적 입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 경주와 상주는 신라 이래의 대읍으로서 정치행정적 중심지로서의 입지요인이 컸으며, 대구는 중심지적 위치 및 교통로 등의 경제적 이점이 입지 선택에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안동과 진주는 고려시대 이래의 지방중심지적인 대읍으로서 풍수적 입지 국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입지하였다.

다음으로 인문적 풍수경관 구성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신읍을 기준으로 경상도 읍치에 인문적 풍수 경관 요소가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읍치는 69개로서 97%를 차지하였다. 구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읍치(4, 5가지 구성 요소 구비)는 3개소(울산, 진주, 선산)가 나타나 약 4% 정도였고, 그리고 풍수경관 구성

도가 보통으로 나타난 읍치(2, 3가지 구성 요소 구비)는 총 34개소로서 약 48%의 비율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읍치 경관에 풍수적 구성이 비교적 적게 드러나는 읍치(1가지 이하의 구성 요소 구비)는 34개소로서 전체 읍치에서 48%를 차지하였다.

인문적 풍수경관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하면, 행정건 축물의 場所(객사 혹은 동헌의 입지 및 배치)는 전체 邑基의 79%가 풍수적 입지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읍치의 비보는 전체 邑基의 56%가 갖추고 있었다. 邑基 경관의 形勝이 읍치에 풍수적 관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읍치는 21%가 나타났고, 풍수의 형국과 관련된 地名 요소를 가진 읍치도 14%가 있었다. 그리고 읍치의 풍수적 경관과 관련된 풍속(대동놀이)을 가진 읍치도 3개소가 있어 전체의 4%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읍치의 행정적 장소는 대다수의 읍치가 풍수를 고려하고 있고, 비보 역시 과반수의 읍치에서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경상도 읍치의 경관유형을 풍수적 관점으로 일반화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적인 풍수 입지국면을 갖추지 못하고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가지지 못한 邑基로 거제 사등성, 고성, 남해 구읍, 단성 강루리, 영일 장흥동 邑基 등이 있었다. 이들 읍치의 공통적인 속성은 모두 지리적으로 해안에 입지한 (沿)海邑들인데, 왜구의 방어를 위해 읍성을 축성하고 읍을 설치한 읍치로서 군사방어적인 요충지로서의 위치 여부가 주요 입지요인으로 작용했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도 구릉지(고성) 혹은 평지(단성 강루리, 영일 장흥동)에 입지하여 來龍이나 藏風의 풍수적 조건을 얻기 어려웠다.

둘째, 자연적인 풍수입지를 하지 않았지만 인문적인 풍수경관 요소를 가지고 있는 邑基(거창, 경산, 경주, 대구, 상주, 영일 생지리 구읍, 영덕, 영해, 진보 진안리 구읍, 청하, 풍기 등)나, 자연적 풍수입지 요소가 비교적 적지만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는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산청, 울산, 함안, 청도, 상주 등)가 있다. 이들 읍치는 최초 군사방어, 교통, 고려 말 이후로 점유되어 왔던 중심지적 관성 등의 입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풍수적 입지가 아니거나 풍수적 국면이 적게 나타나는 곳에 입지하였지만 나중에 풍수적 국면으로 보

표 4. 경남 읍치의 풍수적 입지분석

평지	자연적 풍수입지				인문적 풍수경관					입지도 종합	읍지도 종합	읍지도 종합	읍지도 종합	
	來龍	藏風	得水	입지도	場所	裨補	形勝	地名	風俗					입지도
거제	사등성	■			△							0	△	主山 來龍이 불확실, 해안가 평지 입지, 北向 국면
	고현성	■		■	□	■			■			2	□+2	지명주산-鷄龍山, 배후의 主山 뚜렷, 北向의 국면
거제면	■	■	■	○	■				■			2	○+2	來龍 穴證. 案山(南山)에 伏龍山이라는 지명
거창			■	△		■						1	△+1	강변 평지에 입지하여 主山 來龍 조건이 부족
고성	■			△								0	△	해안 구릉지 입지
곤양	■	■	■	○	■							1	○+1	得水-合水
기창	■		■	□	■							1	□+1	동부리 신읍. 主山이 읍지의 서편에 위치.
김해	■	■	■	○	■	■	■					3	○+3	비보-朝案山이 허결하여 비보한 것으로 추정.
남해	구읍	■			△							0	△	구릉지성 혹은 山城 입지
	신읍	■		■	□	■	■					2	□+2	안산과 상대하여 읍치 배치, 읍치의 북쪽이 허결하여 숲으로 비보
단성	강루리			■	△							0	△	강변 평지에 입지
	성내리	■	■	■	○	■						1	○+1	
동래	■	■	■	○	■	■		■				3	○+3	형국-안산(남산)의 弄珠(山)라는 형국 명칭
밀양	■	■	■	○	■	■						2	○+2	得水-面水, 비보-숲
사천	■	■	■	○	■							1	○+1	來龍-主客 相對
산청			■	△	■	■	■					3	△+3	하안평지 입지, 비보-水口막이 조산(海東地圖))
삼가	■	■	■	○	■							1	○+1	得水-環抱水
안의	■	■	■	○	■							1	○+1	來龍-主客相對, 四神砂, 得水-환포수
양산	■		■	□		■						1	□+1	東高西低 지형
언양	■		■	□					■			1	□+1	분지지형의 평지에 입지
영산	■	■	■	○	■	■				■		3	○+3	水口막이 비보-蓮池, 石橋
울산	■		■	□	■	■	■			■		4	□+4	
웅천		■	■	□								0	□	분지지형의 평지에 입지
의령	■	■	■	○	■			■				2	○+2	지명-鳳舞山, 九龍山
진주	■	■	■	○	■	■	■	■				4	○+4	지명-飛鳳山(주산)
진해	■		■	□	■	■						2	□+2	
창녕	■	■	■	○	■							1	○+1	
창원	■	■	■	○	■							1	○+1	
초계	■	■	■	○	■		■					2	○+2	
칠원	■	■	■	○	■	■						2	○+2	得水-合水
하동	구읍	■	■	■	○	■						1	○+1	태종 17년(1417) - 숙종(1675-1720) 초기 입지
	신읍	■	■	■	○	■						1	○+1	조선 후기(1730년)에 이전된 읍치
함안	■		■	□	■	■		■				3	□+3	형국명-飛鳳山(주산)
함양	■	■	■	○	■	■						2	○+2	
합천	■	■	■	○	■	■						2	○+2	

표 5. 경북 읍치의 풍수적 입지분석

평지		자연적 풍수입지				인문적 풍수경관					입지도 종합	분지경관의 풍수적 특징 및 비교	
		來龍	藏風	得水	입지도	場所	裨補	形勝	地名	風俗			입지도
거제	개령	■	■	■	○	■	■				2	○+2	
	경산			■	△		■				1	△+1	東高西低, 北高南低의 평지 입지
경주				■	△		■				1	△+1	평지 입지, 來脈 비보
고령		■	■	■	○	■	■				2	○+2	향교 입지의 來脈 인식이 분명(《海東地圖》)
군위			■	■	□	■		■			2	□+2	主山の 來脈이 불분명함
김산		■	■	■	○	■	■				2	○+2	
대구				■	△		■				1	△+1	北高南低의 평지 입지
문경		■	■	■	○	■					1	○+1	
봉화		■	■	■	○	■					1	○+1	
비안		■		■	□	■		■			2	□+2	주산 요소, 得水 국면
상주				■	△	■	■				2	△+2	평지 입지
선산		■	■	■	○	■	■	■	■		4	○+4	주산 지명-飛鳳山
성주			■	■	□	■	■				2	□+2	구릉지에 입지하여 來龍이 불분명
순흥		■	■	■	○	■	■	■			3	○+3	형국-飛鳳山
신녕			■	■	□			■			1	□+1	객사지 뒤의 내청룡, 내백호
안동		■	■	■	○	■	■	■			3	○+3	
영덕				■	△		■				1	△+1	구릉지에 입지하여 來龍이 불분명
영양		■	■	■	○	■	■	■			3	○+3	
영일	장흥동			■	△						0	△	평지 입지
	남성리	■		■	□	■					1	□+1	산기슭에 입지하였으나 장풍적 조건은 불비
	대잠동	■	■	■	○	■					1	○+1	풍수적 국면이 뚜렷함.
	생지리			■	△		■				1	△+1	평지 입지
영주(榮川)		■	■	■	○	■	■		■		3	○+3	풍수지명-鐵吞山
영천		■		■	□	■	■	■			3	□+3	
영해				■	△		■				1	△+1	구릉지 입지
예안		■	■	■	○	■	■				2	○+2	수물
예천		■	■	■	○	■	■				2	○+2	
용궁	구읍	■	■	■	○	■		■	■		3	○+3	客山 지명-飛龍山(《海東地圖》)
	신읍	■		■	□	■					1	□+1	
의성			■	■	□	■	■				2	□+2	
의흥		■	■	■	○	■			■		2	○+2	客山 지명-龜山(《海東地圖》)
인동		■	■	■	○	■	■	■			3	○+3	
자인	신관리	■	■	■	○	■					1	○+1	1637년 입지, 산곡입지
	원당리	■		■	□	■					1	□+1	들판을 향하고 野山에 배산
	북사리	■	■	■	○	■					1	○+1	
장기		■	■	■	○	■	■		■		3	○+3	山腹 山城 입지, 主산지명-紫鳳山

표 5. 경북 읍치의 풍수적 입지분석(계속)

명지	자연적 풍수입지				인문적 풍수경관					입지도 종합	읍지경관의 풍수적 특징 및 비고	
	來龍	藏風	得水	입지도	場所	裨補	形勝	地名	風俗			입지도
지례	■	■	■	○	■					1	○+1	
진보	진안리			△	■			■		2	△+2	客山 지명-飛鳳山(《海東地圖》)
	광덕리	■	■	○	■					1	○+1	
청도	■		■	□	■	■		■		3	□+3	남고북저 지형, 주산 지명-鰲山
청송	■		■	□	■					1	□+1	
청하			■	△		■				1	△+1	구릉지 입지
칠곡	구읍	■	■	○	■	■				2	○+2	山城-山腹 입지
	신읍	■	■	○	■					1	○+1	
풍기			■	△		■				1	△+1	평지 입지
하양	구읍	■		□	■					1	□+1	
	신읍	■	■	○	■					1	○+1	1679년 이전
함창	■	■	■	○	■					1	○+1	주객 상대
현풍	■	■	■	○	■		■			2	○+2	
홍해			■	△		■				1	△+1	평지 입지

(입지도 표기 기준)

자연적 입지요소 인문적 경관요소	자연적 입지요소		
	1개	2개	3개
없음	△	□	○
1개	△+1	□+1	○+1
2개	△+2	□+2	○+2
3개	△+3	□+3	○+3
4개	△+4	□+4	○+4
5개	△+5	□+5	○+5

완, 구성하기 위한 인문적 노력을 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적 입지국면에서 풍수적 여건이 불비한 읍지라도 읍치 주요 場所(관아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에 있어서는 풍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상주, 울산, 남해, 진해, 함안, 군위, 비안, 성주, 영천, 청송, 진보 진안리 구읍 등).

셋째, 풍수적 입지국면은 잘 나타나지만 인문적인 풍수경관 요소는 갖추지 못한 읍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풍수가 주요 입지요인이 된 읍치의 경우는 행정적 건축물(특히 衙舍)의 입지 및 배치를 풍수적인 이상적

장소를 선택하였고, 그밖에 읍치에 따라서는 인지적으로 읍지나 읍지도에 표현하며, 풍수지명 등으로 경관 이미지를 풍수적으로 강화시키거나 비보국면의 보완을 통해서 풍수적 경관구성을 충실하게 하였다.

넷째, 자연적인 풍수 입지국면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김해, 동래, 영산, 진주, 선산, 순흥, 안동, 영양, 영주(榮川), 용궁 구읍, 의흥, 장기)가 있다. 이들 읍치들은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관문도시라기보다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대읍 혹은 중소읍으로서의 지방행정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 읍치들의 공통적인 입지지형적 속성은, 읍지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인 산기슭에 입지한 지형(藏風의 산기슭형)이거나 읍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두른 평지에 입지한 지형(背山 平地形)이었다.

다섯째, 같은 읍치 단위에서 구읍과 신읍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 구성도를 서로 비교해 볼 때 구읍 보다는 신읍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구성도가 높게 드러났다(영일과 용궁은 예외).

## 2) 지형·지리적 입지 분포의 풍수적 분석

읍치의 입지분석에 있어 읍치의 지형적, 지리적 분포를 풍수와 관련시켜 분류하고 해석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상도 邑基의 지형적 입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나중에 입지한 읍치(新邑)를 기준으로 평지지형에 입지한 읍치는 총 71개 읍치 중에서 24개소가 나타나 전체에서 3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일반평지는 8개소의 읍치로 전체의 11%, 배산평지는 16개소의 읍치로 전체에서 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구릉지에 입지한 읍치는 5개소가 나타나 전체 읍치 중에서 7%의 비율로 나타났다. 경상도 읍치의 입지지형 중에서 산기슭 입지가 41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읍치의 입지지형에서 약 58%를 차지하였다. 山腹에 입지한 읍치는 기능적으로 산성으로서 경북 장기의 1개소만 나타났다고 구읍까지 포함하면 모두 4개소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경상도 읍치가 입지한 지형은 산기슭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뒤로 산을 끼고 있는 배산평지, 해안이나 하안가에 입지한 일반 평지, 구릉지, 산복(산성)에 입지한 읍치의 순서를 보였다. 그 중에서 산기슭과 배산평지의 입지지형은 풍수적 입지 국면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경상도 읍치에 산기슭과 배산평지 지형에 입지한 읍치가 많은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풍수도 그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경상도 읍치의 지리적인 입지 분포(표 6)를 풍수적 입지(표 4, 5)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륙에 입지한 읍치(陸邑)는 총 71개 읍치 중

에서 53개소로 75%를 차지하였고, 해안에 입지한 읍치(海邑)는 18개소로 25%를 차지하여 내륙에 입지한 읍치가 월등히 많았다. 내륙에 입지한 읍치 중에서 전형적인 풍수적 입지를 한 읍치는 33개소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반면, 해안에 입지한 읍치 중에서 전형적인 풍수적 입지를 한 읍치는 8개소로 전체의 11%를 차지하여 역시 같은 비율로 해읍보다 내륙읍에서 풍수적 입지 비율이 3배로 높았다. 이러한 배경요인을 보자면, 해안에 입지한 읍치는 방어적인 요충지 위치가 많은 반면 내륙에 입지한 읍치는 지방중심지적인 위치가 많고, 내륙읍은 해읍에 비해 풍수적 조건을 고려하여 입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지형적 조건 역시 풍수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풍수적 입지의 역사적 경향성 분석

풍수적 입지 및 경관 구성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그 경향성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읍치 중에 입지 시기가 분명한 邑基를 따로 분류하여 시계열적으로 풍수적 입지 및 경관구성을 따져보고 시대적 경향성을 개관한다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 7은 읍치가 입지한 시기별로 풍수적 입지도와 연관시켜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표를 토대로 경상도 읍치 경관의 역사적 경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 읍치의 입지 경향을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풍수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새로 들어서거나 읍치를 이동한 읍치의 입지에서 분명한 풍수적 지향성이 드러

표 6. 경상도 읍치의 지형 및 지리적 입지 분포

입지 항목	자연적 풍수입지					인문적 풍수경관	
	평지		구릉지	산기슭	산복	내륙	해안
	일반	배산					
읍치 수	8	16	5	41	1	53	18
비율(%)	11%	23%	7%	58%	1%	75%	25%
	34%						

주: 읍치를 이동한 경우는 신읍을 기준으로 함

표 7. 경상도 읍치의 입지시기와 풍수

읍치 명	입지 시기	자연적 풍수입지	자연인문 입지도 종합	지형적 입지	지리적 입지	현 위치
함양	1380	○	○+2	배산평지	내륙	함양군 함양읍 상리, 하리
영일(장흥동 구읍)	1389	△	△+0	일반평지	해안	포항시 장흥동
하동(고하리)	1417년경	○	○+1	산복	내륙	고전면 고하리 성안마을
기장	1421	□	□+1	구릉지	해안	부산광역시 기장읍 동부리
비안	1421	□	□+2	산기슭	내륙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서부리
거제(사등성 고읍)	1423	△	△+0	배산평지	해안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영천	1424년 무렵	□	□+3	산기슭	내륙	영천시 창구동
안의	1425	○	○+1	산기슭	내륙	안의면 당본리, 금천리
울산	1426	□	□+4	산기슭	해안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성남동
거제(고현성 구읍)	1432	□	□+2	산기슭	해안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곤양	1437(추정)	○	○+1	산기슭	해안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남해(신읍)	1439	□	□+2	배산평지	해안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서변리, 북변리
영일(남성리 구읍)	1439	□	□+1	산기슭	해안	포항시 대송면 남성리
사천	1442-1445	○	○+1	산기슭	해안	사천시 정의리, 선인리
동래	1446	○	○+3	산기슭	해안	동래구 안락1동
자인(신관리 구읍)	1637	○	○+1	배산평지	내륙	자인면 신관리 관상동
거제(거제면 신읍)	1663	○	○+2	배산평지	해안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서상리
하양(신읍)	1679	○	○+1	산기슭	내륙	경산시 하양읍 교리, 금락리
영양	1682	○	○+3	산기슭	내륙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자인(원당리 구읍)	1727	□	□+1	산기슭	내륙	자인면 원당리 원당
하동(신읍)	1730	○	○+1	산기슭	내륙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단성(성내리 신읍)	1731	○	○+1	산기슭	내륙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영일(장흥동 구읍)	1747	△	△+0	일반평지	해안	포항시 장흥동
자인(북사리 신읍)	1759	○	○+1	배산평지	내륙	경산시 자인면 북상리
칠곡(신읍)	1819	○	○+1	산기슭	내륙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용궁(신읍)	1857	□	□+1	배산평지	내륙	용궁면 읍부리
영일(생지리 구읍)	1866	△	△+1	일반평지	해안	영일읍 생지리
영일(대잠동 구읍)	1871	○	○+1	산기슭	해안	포항시 대잠동
영일(생지리 구읍)	1886	△	△+1	일반평지	해안	영일읍 생지리
진보 광덕리	1872년 이후	○	○+1	배산평지	내륙	진보면 광덕리

내는데, 이러한 경향의 배경은 조선시대 중앙의 정치권력이 지방의 읍치에 미친 지배력 혹은 통제력과 상응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입지적 가치 및 요인들 중의 하나로서 풍수가 끼친 사회적 영향력의 시대

적 변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경상도 읍치의 경관구성 경향을 역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 초기에 입지한 읍치는 조선 중후기에 입지한 읍치보다 인문적인 풍수경관 구성이 더 강하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기에 입지한 읍치는 풍수적 입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관의 풍수적 구성을 통하여 풍수적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보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도 邑基 입지의 지리적 변천은 내륙·해안 내륙 내륙·해안의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지형적 변천은 산복·구릉지·산기슭·평지→산기슭 혹은 배산평지→(일반·배산)평지의 경향성을 나타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초기에는 내륙과 해안의 산복, 구릉지, 산기슭, 평지입지가 혼용되다가, 조선 중기에는 내륙의 산기슭과 배산평지에 새로 입지하거나 이동하는 읍치가 많아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내륙과 해안의 평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배경 요인으로는, 조선 초기에는 왜구로 인한 군사방어를 위한 입지 요인과 고려조 치소의 정치중심지적 관성이 유지되어 해안 혹은 내륙의 산복이나 구릉지에 입지하거나 풍수적 요인으로 인해 산기슭 혹은 배산평지에 입지하게 되지만,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왜구의 평정으로 인한 방어적인 입지요인의 비중은 작아지고 읍치 입지 및 읍치 이동 과정에 풍수적 요인이 중시됨으로써 내륙의 산기슭 혹은 배산평지에 입지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조선 후기에 와서는 교통로의 접근성, 지리적 중심적 위치, 경제적 요인, 풍수적 요인 등으로 새 읍지의 입지 결정 및 읍치 이동 과정에서 내륙이나 해안의 (일반·배산)평지로 지향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 5. 맺음말 및 토론

이 논고는 조선시대 지방도시(읍치)의 풍수적 경관을 자연적인 풍수 입지요소와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경상도 71개 읍치를 사례로 현지 조사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경상도 71개 읍치에서 풍수적 입지경관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약 58%에 이르고, 풍수적 입지국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읍치도 20% 정도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입지한 읍치는 풍수적 국면이

완연하지는 않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 새로 들어서거나 읍치를 이동한 지방도시의 입지에서는 분명한 풍수적 지향성이 드러났다. 그런데 풍수적 입지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들의 경우라도 조선 중기 이후에 풍수가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증되자 기존 邑基는 풍수적으로 새로 해석되고 인문적 요소를 통하여 풍수적 경관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에 신라나 고려시대 이후로 유지되어 오던 읍치는 입지적 성격과 설치 배경에 따라 풍수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풍수적 요인이 부분적으로만 입지결정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읍치의 기능은 수도와 같이 정치행정적 중심지 기능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기에 풍수적 입지요인이 불필요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조선 초에 설치된 해읍과 같이 방어적 목적이 입지요인으로 된 경우는 요충지적 위치가 선택되었고 따라서 풍수적인 지형국면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읍치들은, 조선조에 중앙의 지방통제력이 강화되고 풍수적 입지관념이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읍지경관을 풍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행정관사의 장소나 비보경관 등 인문적 경관이 풍수적 원리에 맞춰 새롭게 풍수적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 읍치의 입지는 지형적으로 山城에서 背山臨水の 平地 혹은 藏風의 산기슭으로 이전되는 패턴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풍수는 읍치의 입지 결정 및 이전 과정에 일정한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에 읍치가 새로 지점되거나 이동될 때 풍수적 입지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풍수적 요인으로 읍치 이동이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읍치의 객사·동헌·향교 등 주요 건축물의 입지는 가급적 풍수의 이상적인 장소가 선택되어 입지되거나 풍수가 좋은 자리로 이동되어 배치되었으며, 기존에 풍수적인 입지 국면을 갖추지 못한 읍치의 경우에는 邑基의 풍수적인 재해석을 통해 풍수적 경관으로 구성하려는 인문적인 노력도 뒤따랐다. 이와 같은 읍치 경관의 풍수적인 경관구성 과정 및 방식은 물리적인 형태의 비보를 邑基 경관에 조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읍지도(군현지도)·읍지 등의 읍치 공식문헌에 읍치경관의 풍수가 인지적

으로 표현되고, 풍수적 지명과 풍속(대동놀이)과 같은 문화상징적 차원으로까지 체계화되어서 지방사회 일반의 코드로 통용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였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일부 읍치에서 풍수적 이데올로기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와 세력의 도전을 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 풍수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읍치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고려시대 이후로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중앙권력집단의 풍수적 이데올로기가 읍치에 까지 파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경상도 읍치의 경관유형은 풍수적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을 갖추지 못하고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의 비중도 낮은 읍치이다. 이들 읍치의 공통적인 속성은 海邑인데, 군사방어를 위한 요충지적인 위치가 주 입지요인으로 작용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자연적 풍수입지를 하지 않았거나 비중이 적지만 인문적 풍수경관 요소는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들 지방도시는 최초 고려 말 이후로 점유되어 왔던 중심지적 관성, 군사방어, 교통, 경제 및 상업 등 風水 外的인 입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지하였지만 나중에 풍수적 인문경관으로 재구성된 결과이다. 셋째, 자연적 풍수입지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속성은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지방행정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읍치의 지형적 입지를 분석한 결과 산기슭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뒤로 산을 끼고 있는 배산평지, 해안이나 하안가에 입지한 일반 평지, 구릉지, 산복의 산성에 입지한 읍치의 순서를 보였다. 그 중에서 산기슭과 배산평지의 입지형태는 풍수적 입지국면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경상도 읍치에 산기슭과 배산평지 지형에 입지한 읍치가 많은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풍수도 그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리적인 입지 분포를 풍수적 입지와 관련하여 분석해보면 陸邑은 75%를 차지하였고, 海邑은 25%를 차지하여 내륙에 입지한 읍치가 월등히 많았다. 邑基 입지의 지형적 변천은 산복·구릉지·산기슭·평지→산기슭 혹은 배산평지→(일반·배산)평지의 경향성을 나타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초기에는 내륙과 해안의 산복, 구릉지, 산기슭, 평지입지가 혼용되다가, 조선 중기

에는 내륙의 산기슭과 배산평지에 새로 입지하거나 이동하는 읍치가 많아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내륙과 해안의 평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의 연구결과를 발판으로 읍치 풍수에 관한 후속 연구 및 토론 과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조선시대 도시체계상에서 읍치와 수도를 연계시킨 풍수적 연구가 요청된다. 읍치로 풍수가 파급되는 과정과 그 배경에 관심을 두고, 왕도를 宗主로 하는 조선조 정치행정체계 하에서 구조적으로 조성된 읍치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구성이라는 초점에서 후속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읍치의 풍수경관 연구는, 조선조 정치사회적 중앙지배집단의 풍수적 이데올로기가 읍치로 파급되는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시대 읍치는 漢城의 하위행정조직으로 편제되어 있기에 도성의 입지 및 경관구성 원리와 직결되어 있었다. 『太祖實錄』(2年 2月 9日)에 언급되어 있듯이, 조선 초기 도성(한양)의 입지선택 과정에서 산천의 형세, 漕運과 도로, 성곽 축조 등의 조건이 꼽힌 바 있는데 여기서 '산천의 형세'라는 뜻은 풍수적인 조건을 포함한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자연환경을 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성의 입지 결정 조건은 하위 행정 단위인 읍치 읍성의 입지 있어서도 그대로 준칙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계 하에서 읍치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구성은 한양 도성의 모델에 준거하여 이루어지며 규모의 차이 외에는 입지 및 조영원리와 요소, 경관구성 등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읍치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구성은 한양 도성의 모델을 따랐지만 그 비중과 경관구성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역사적 시기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풍수적 국면을 가진 읍치는 규모의 차이 외에는 입지 및 조영원리와 요소, 경관구성 등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조선시대 읍치 풍수경관의 원형 및 기원지는 한양의 도성이며, 읍치로 풍수가 확산된 과정은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지방관의 파견과 함께 이루어졌고 따라서 지방관은 읍치풍수의 擴散者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둘째, 조선시대 취락체계상에서 읍치와 마을을 연계시킨 풍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읍치의 풍수가 주변 마

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읍치경관의 풍수적 영향력은 주변의 마을로 일정하게 파급되어 都·邑·村으로의 계층적 확산 및 접촉 확산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반촌의 경우는 入鄕祖가 한양에서 직접 지방의 마을로 낙향하기도 하여, 사회적인 과정은 달랐으나 경관구성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읍치와 마을의 풍수적 관련에 관해서는 사례와 함께 후속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읍치의 풍수적 경관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되었고 어떻게 경관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 요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조선 후기를 거치는 동안 읍치에서 풍수적 가치는 여타 경제적 요인에 비하여 세력이 약해졌고 이에 따라 풍수적 경관구성력도 낮아져 읍치경관에 반영되었다.

넷째, 이 글은 경상도 읍치를 대상으로 풍수적 경관을 연구하였지만, 여타 지역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구성은 경상도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도시에 대한 풍수적 연구가 축적되어 한국적 정체성이 정립되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방도시의 풍수와도 비교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謝辭

이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읍치의 경관요소 연구 및 현지조사는 김덕현 교수의 도움을 입었고, 경상도 읍치의 지형적 분류와 입지의 역사적 경향성 분석에 관한 내용은 이기봉 박사의 아이디어와 기초자료 제공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논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윤홍기 교수의 조언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 註

- 1) 자연적 풍수입지 요소 중에서 來龍 및 藏風 조건은 현지조사를 위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군현도(海東地圖, 1872년에 제

작된 규장각 소장 군현지도)를 참고하여 판별하였으며, 得水 조건은 『海東地圖』를 참고하여 판정하였다. 그리고 인문적 경관 요소 중에서 裨補 항목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場所 항목은 현지조사를 위주로 하고 군현도를 참고하여 판별하였다. 형승 항목은 읍지의 형승조를 기준으로 하였고, 지명은 문헌이나 읍지도에 나오는 풍수지명을 정리 하였으며, 풍속 항목은 문헌(읍지)에 기초하였다.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연적 입지 요소에서 來龍은 主山 및 天脈을 갖추었을 경우, 藏風은 주산에 左靑龍 및 右白虎를 갖추었거나 主山에 상대하는 客山을 갖추었을 경우, 得水는 環抱水 혹은 合水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로 하였다. 그리고 인문적 경관 요소에서 場所는 객사와 동헌 중에서 하나라도 풍수를 고려하여 입지를 하고 있는 경우, 裨補는 비보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形勝은 邑誌 형승조에 풍수적 관념이 반영된 경우, 地名은 풍수적 지명이 고문헌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風俗은 읍치의 풍수적 경관구성과 관련된 풍속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풍수입지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3가지 자연적 입지요소를 모두 갖춘 읍치(○ 표기)는 풍수적 입지 경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읍치이고, 2가지 자연적 입지요소를 갖춘 읍치(□ 표기)는 부분적으로 풍수적 입지경관이 나타나는 읍치이며, 1가지 이하의 자연적 입지요소만 갖춘 읍치(△ 표기)는 풍수적 입지경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읍치이다. 따라서 ○ 표기 읍치는 풍수적 요인이 입지 인자로 주요하게 반영된 읍치이고, □ 표기 읍치는 풍수적 요인이 입지 인자로 부분적으로 반영된 읍치이며, △ 표기 읍치는 풍수적 요인이 입지 인자로 작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읍치를 표시한다. ○ 표기 읍치 중에서 邑基가 이동된 읍치는 이동 동기 및 입지 결정 과정에서 풍수가 주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文獻

- 太祖實錄(歷史編纂委員會, 1986)  
 新增東國輿地勝覽(明文堂, 1959)  
 輿地圖書(歷史編纂委員會, 1973)  
 慶尙道邑誌(韓國人文科學院, 1983)  
 海東地圖(규장각 소장)  
 1872년 郡縣地圖(규장각 소장)

- 이정국·박광규·이해성, 1990, “조선시기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5), 29-37.

최원석, 2004,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3), 1-35

최원석, 2005, “지적원도를 활용한 읍성공간의 역사지리적 복원,” 문화역사지리, 17(2), 1-10.

경상도읍치경관조사자료집-경상도 읍치의 역사적 조사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분야 연구지원(KRF-2002-072-BS1029)

교신 : 최원석, 1-3 Elderwood Ln, Belmont, Takapuna, Auckland, New Zealand

(이메일: wschoe@empal.com, 전화: +64-9-486-3180)

Correspondence: Wonsuk Choi, 1-3 Elderwood Ln, Belmont, Takapuna, Auckland, New Zealand(e-mail: wschoe@empal.com, phone: +64-9-486-3180)

최초투고일 07. 07. 10

최종접수일 07. 08. 27